

을 채용하여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게 하였다. 그 결과 영어 70에 중국어가 60이 된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Dual Language의 의도대로 중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하기로 하여 중국어가 정규 과목이 된 것이다. 이 학교에서도 한국어가 불리한 것은 한국어는 선택과목이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의무과목이다. 의무과목은 졸업할 때까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 선택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200여 명의 한국계 학생이 한국어 선택을 꺼리고 중국어나 일본어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다.

이러한 사정을 교민들 스스로 알고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보다 적극적인 한국어 추진을 위하여 뉴욕에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추진회”를 조직하였다. 교민 사회의 유지 3분을 공동대표로 하고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며 한국교육재단의 이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한 추진회는 우선 학교 학부모들을 계몽하는 사업,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이 왜 필요한가를 계몽하기 위한 강연회, 한국어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을 모델로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이것을 따르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행히 한국계 교육위원이 상당수가 되고 젊은 2세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어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에서의 한국어 보급운동은 앞으로 10년이 가름길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의 총 없는 문화전쟁은 10년이 고비가 된다는 말이다. 10년 이내에 미국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서둘러야 하며 중국어나 일본어가 이미 채택된 학교에 한국어를 보급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동포들이 전력을 다하여 미국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고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교육부는 말할 것 없이 학계,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은 물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국어 보급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박 환 덕

들어가는 말

세계문학사는 결코 세계문학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여전히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을 구분하는 시도가 존재한다면 그 준거의 틀은 언어의 차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언어사회학이 밝혀내고 있듯이 인종, 민족, 언어와 국가 간의 상관관계는 지극히 복잡하게 상호 얽혀 있는 관계이며, 최근 부쩍 관심을 끄는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화의 경계는 더 이상 언어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학이 세계문학사에 미약하나마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번역가들의 노고와 열정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들의 선구자적인 노력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의 우수한 문학작품이 지닌 미적 가치가 세계문학의 자산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1. 한국문학의 세계화

우리말의 세계화에 해당되는 globalisation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경계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신경제주의적 새로운 시장질서의 확립이라는 합목적성 외에 문화 영역에서의 전지구적인 상호 의존성을 함축하고 있어 보입니다. 근대의 정신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타자(他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왔다면, 이러한 근대정신의 귀결 - 『제3의 길』로 잘 알려진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 로 이해되는 글로벌한 지구촌의 시대정신은 문화권 간의 간극의 초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자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지향하는 바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전제한다면, 먼저 산업화에 이른 서구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건설 과정에서 문화 인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이제껏 낯설기만 했던 문화권을 자신들의 잣대로 난도질하고, 자신들의 문화의 우위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면, 작금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들의 근거에는 모더니티의 형성과정이 결코 구대륙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형태의 문화적 헤게모니 개념, 혹은 문화적 우위 개념이 통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계를 허물고 간격을 뛰어넘는 글로벌한 시대에는, 프랑스의 석학 자크 데리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 문화권에는 각기 그 고유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내 것만이 아닌 타자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프랑스어를 모국어라고 생각하고 자란 유대인 소년 자크 데리다가 제2차 대전의 와중에 독일의 프랑크 점령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겪게 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나의 언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이다”라는 명제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수년간 일본어 교육을 받으며 자란 우리 세대가 지니는 문제의식을 일견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리다의 명제가 탈식민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200여 년 전 괴테가 세계문학을 이야기하고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의미 연관하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유대인 소년이 하루아침에 위대한 프랑스인에서 경멸적인 유대인으로 낙인 찍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각하게

된 바는, 결코 자신을 배반한 위대한 조국 프랑스에 대한 실망감뿐 아니라, 문화적 이질성의 판단이 다분히 작의(作意)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하루아침에 배반한 모국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리다는 말하기를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思考)의 '도피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기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타자의 언어이다”라는 명제는 데리다가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열린 어느 번역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일견 완전한 번역이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명제를 담고 있는 그의 주장에는 그러나 문화번역이 지닌 역학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바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언어만을 강요하는 것이 지니는 부당함을 메타언어의 부정을 통해서 설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일견 의미연관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데리다의 이야기를 길게 할애하고 있는 까닭을 아마도 독자 여러분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데리다는 언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이지만 극명하게 이질적으로 드러나는 문화 현상을 통해서 절대적인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타자 간의 이질성에 대한 강조가 근대의 정신이라면, 이제 문화권 간의 동시적 상호간섭이 극대화된 글로벌한 시대에 정치·경제적 우열성에 근거한 문화적 독점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유럽중심주의적 사고의 종언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문학의 세계문화사적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분히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간극이 없어진 글로벌한 시대가 요구하는 바는 마치 우리 한국의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특정 언어권의 문화 현상들의 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계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삶을 풍부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즉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단지 ‘그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요?

아마도 『압록강은 흐른다』로 유명한 이미륵은 “나는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데, 그것은 나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의미하는 바를 가장 빨리 이해한 분이 아닐까 합니다. 자전적인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1919년 삼일 독립 운동에 학생의 신분으로 참가한 다음 일본 경찰을 피해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망명길에 오른 이미륵은 수많은 다른 후배들과는 달리 일찍이 모국어가 아닌 독일어로 문필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체험을 어느 독일 신문에 기고한 “다른 방언(Der andere Dialekt)”이라는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름 휴가철 그는 남부 독일 어느 수도원에 몇 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마음씨 착한 독일인 수도승들과의 수도원 생활은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기에 충분하리 만치 흡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가끔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굳게 잠긴 수도원 정문에 뚫린 자

그마한 구멍으로 빠끔히 내다보며 반갑게 문을 열어 주던 커다란 텅치의 문지기 수도승에서 매일 자신의 방을 청소하며 식수를 날라 주던 젊은 수사, 그리고 이지적으로 보이는 수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 수도원의 모든 수사들이 멀리 동양의 조선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이지적인 이미룩에게 친절하게 편리를 보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도 여늬때처럼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예의 문지기 수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수사가 문을 열어 주는데, 문지기 수사는 어디 갔느냐는 그의 질문에 그 수사가 답하기를 “당신 나라 사람이 왔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우리나라 사람이 왔다는 대답에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물으니,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그 문지기 수사가 수도원장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인사가 끝나면 이미룩 선생의 방으로 안내해 줄거라는 친절한 덧붙임까지 하고, 이미룩은 실로 십수 년만에 고향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설레임에 자신의 방에서 기다리는데, 얼마 있자 정말 문지기 수사가 의기 양양 선생의 방에 들어서는데 어느 한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무척 남루한 복장의 그 동행인은 아무리 봐도 동양인 같지 않는데 그 문지기 수사는 “당신 고향사람이 왔구려, 반가우시겠소” 하면서 답을 듣기도 전에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동행객은 알고 보니 북아프리카의 마로코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프랑스령인지라 프랑스군에 차출되었다가 어찌어찌 탈영해서 독일까지 도망와서 이 수도원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수도원에서만 보낸 이 순박한 독일 수도승들은 외국인들을 본적이 없어서인지 이 마로코인을 보자 마침 머물고 있던 이미룩의 고향사람이라고 단정지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로코인은 프랑스어만을 할줄 알고, 이미룩의 프랑스어 실력은 대화를 이끌 정도로 능통하지 못하고, 다만 사전의 도움으로 간신히 두 사람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대화를 이끌어 마로코인에게 자신의 옷가지를 몇 개 갈아 입히고, 서로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황망하게 말없이 앉아 있는데, 수도승이 의기양양하게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향사람을 만나서 반갑지 않느냐는 그 수도승의 질문에, 그의 호의를 저버릴수 없어 이미룩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그 수도승이 말하기를, “당신네 고향말을 들어보고 싶으니, 한번 두 사람이 대화를 해보시지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난감할 수가. 이때 이미룩에게 번뜻 떠오른 생각이 있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긴 한데, 우리나라 말에는 방언이 무척 심해서, 저 사람은 남쪽 끝이 고향이고 나는 북쪽 끝이 고향이라, 우리 두 사람이 쓰는 방언이 너무 달라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한참동안 멀뚱멀뚱 천정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남부 독일 어느 시골 수도원에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아마도 더 이상 우리가 마로코사람들과 혼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우리의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대외적인 시선은 그리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에서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슬로건이 여전히 실효성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2. 홍종우와 『춘향전』

한국문학의 유럽사회에 대한 해외 번역 출간의 시작에는 항시 1892년 홍종우가 번안한 프랑스어 역 『향기로운 봄(춘향전)』이 언급되어집니다. 홍종우에 대한 평가는 그의 인생역정에 대한 서로 상반된 주장들 만큼이나 무척 상이합니다. 어찌어찌하여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홍종우는 갑신정변의 주동자 김옥균을 암살하여 고종의 총애를 받고 광무개혁의 주체가 되지만, 곧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공직인 제주 목사직을 1905년 사직하고 1909년 상해를 거쳐 프랑스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 이후 귀국한 그는 별다른 활동 없이 전라도 무안군에서 거주하다가 1913년 사망합니다. 한국문학 최초의 한국인 해외 번역자이자 김옥균 암살자라는 일견 낯설어 보이는 경력의 인물 홍종우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엇갈립니다.

김옥균은 20대에 한성 판윤을 지내고,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급진적인 한국의 근대화를 시도(갑신정변)하였다가 3일천하로 끝나는 실패로 일본 망명길에 오릅니다. 다시 상해로 이홍장을 만나러 떠났다가 홍종우에 의해 암살당하는 김옥균의 삶 자체가 한국근대사의 비극적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홍종우에게 김옥균을 암살하게 하였을까 하는 의문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은 이 글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단지 홍종우가 프랑스에 체류하며 관여한 한국 고전서의 프랑스어 번역에서, 특히 『춘향전』 번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김윤식 교수의 해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종우는 일본을 거쳐 프랑스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90년 프랑스에 도착한 홍종우는 처음 정치인 행세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홍종우는 프랑스 외무부장관을 만나서 1886년 6월 4일 한·불 수교조약 시에 자신이 참여하였음을 상기시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묵살 당합니다. 아마도 홍종우는 어떤 식이든 당시 정부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증거로 그가 김옥균을 암살하고 돌아오자 고종은 홍종우의 등용을 위해 별시를 치루게 합니다. 그는 모종의 임무를 띠고 프랑스로 건너 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임무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프랑스의 법제도를 공부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던지 아니면 그 당시 왕당파가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메이지 유신에 끼친 프랑스 법률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였던지 간에 홍종우의 도불은 나름의 사명을 띤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홍종우 본인은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종우의 계획은 당시 프랑스 외무부장관의 묵살로 인해 일대 전환을 맞이합니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이제는 호구지책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지인의 도움으로 기메 박물관의 동아시아 관련 사료 정리를 호구지책으로 삼게 됩니다. 이 시기에 동양학 교수인 로니(J.H. Rosny)와 인연을 갖게 되고, 로니의 이름으로 춘향전을 번역하게 되는데(정확하게는 번안),

이 번역본에서는 춘향이가 퇴기 월매의 딸이 아닌 서민의 딸로 뒤바뀌고, 향단이가 빠져 있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의 원형과는 전혀 다른 유럽인의 시각에서 다시 씌여진 한국판 사랑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역자 로니가 춘향전에서 감탄하는 것은 이 한국판 사랑의 대서사시에서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두 주인공은 물론, 변학도 마저 죽지 않고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우리 고전의 송고미에 대한 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책의 서문에 실린 내용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홍종우의 가치관은 아마도 그 당시 대다수 사대부가 그리했겠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근원과 조선의 근원을 중국과 동일시하려는 사고는 아마도 그 당시 사대부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나, 소위 '선진' 서구의 법률 체계를 공부하여 조선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사명감에 머나먼 길을 떠난 청년 홍종우가 여전히 이러한 사대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었다는 것은 어쩐지 어색한 삽화 한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홍종우와 로니 교수의 『춘향전』 번역작업에 있어서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 할 수 없었던 홍종우는 로니와 아마도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작업에서 홍종우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위의 해설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홍종우는 자기 나름의 춘향전 스토리를 제공하고, 로니는 다시 19세기 말 유럽인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종우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로니는 다른 한편 나름대로 한국의 고전이 사해동포적인 평화주의의 초석을 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타자의 문화 속에서 자아를 찾기 위한 몸짓을 다시금 역으로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문법으로 바라본 셈입니다.

로니는 한국 고전문학의 아주 특이한 송고미의 본질이 '아무도 죽지 않는다' 에서 보고 있습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사랑스런 얼굴위에 피가 흐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도령과 춘향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품위 있는 선의와 고결함을 지킨다. 어쩌나 고귀하던지 우리 자존심 많은 유럽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여기에 필적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격렬한 사랑이 '아무도 죽지 않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미적 송고미를 문화적 잠재력으로 지닌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조선! 이 얼마나 장엄하고 중대한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국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봅니다. 로니의 『춘향전』은 그 후 유럽 전역에 그 영향을 끼칩니다. 독일어 등 외국어 번역이 확산되는 한편, 『춘향전』을 소재로 한 발레 『사랑의 시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의 시련』은 『춘향전』을 발레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 미하일 포킨이 직접 대본을 쓰고 안무를 맡아 1936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러시아 발레단에 의하여 초연된 작품이며, 음악은 모차르트의 교향곡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 발레단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망명하여 몬테카를로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기까지 유럽 여러 주요도시에서 『사랑의 시련』을 공연하고, 미국에서도 전후까지 주요도시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10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우

리는 일제의 압제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60년대 중반 최정호 교수는 발레 기록에서 『춘향전』 공연을 발견하고, 이 공연기록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2006년 10월 파리에서 유학 중인 김승열 씨에 의하여 몬테카를로의 공연기록과 사진들이 입수되어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아일보는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미하일 포킨의 안무에 의한 공연(리허설) 필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하일 포킨의 『사랑과 시련』은 이미 서양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공연이 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하일 포킨이 이 작품을 각색하기 위하여 어떤 원전을 이용했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김승열 씨나 김윤식 교수는 홍종우와 로니의 프랑스어 판 번역본이 그 원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이 맞다고 한다면, 손바닥 크기도 안 된 작은 한 권의 문고본이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번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 한국문학 번역 출판의 현황

1890년대에 시작된 한국문학 작품의 해외 번역 출간은 지금까지 약 1,30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적인 면이나 번역의 질적인 면에서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문화부의 해외소개사업의 일환으로 번역 지원이 행해지는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 문예진흥원, 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금고, 대산문화재단의 번역 지원을 통해 1980~90년대에는 보다 많은 작품들이 해외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문예진흥원의 해외소개사업, (구)한국문학번역금고의 번역출판지원사업이 통합되어 한국문학번역원이 탄생하면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에 소개된 한국문학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영어 312종, 프랑스어 141종, 독일어 128종, 러시아어 92종, 스페인어 21종, 일본어 296종, 중국어 240종, 체코어 51종, 기타어 120여 종 등 18개 언어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볼 때 해외에 소개된 일본이나 중국문학 작품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이나 2, 30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해외에 소개되었다고 해도, 영미나 유럽작품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에 비하면 우리 문학과 외국문학의 교류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양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약 1,300여 종이 출간되었으나, 그 중에서 세계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흥미를 끌고,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문학 해외 소개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 문학은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 문학의 대열에 끼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문화가 변별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서구인들의 선입견, 경제력을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구세기적 사고방식에 따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서구의 잣대로 재고자 하는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한국문학을 소개하지 못한 정책적 미숙함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는 일단 알리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처음 한국 문학 번역 및 해외 출판이 시작되었을 당시, 한국문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황무지와도 같은 외국에, 심지어 한국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외국인 독자들에게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학과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작품을 훌륭한 번역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작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작품의 뛰어난 문학성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번역 인력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전혀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문학작품을 출판하는 모험을 할 외국 출판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문학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조급함은 양적인 팽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문학 알리기는 그 지원 편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민간단체인 대산문화재단이 가세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지원은 번역자가 작품을 선정, 번역하고 그에 대해 작품성 및 번역의 질적 수준 등을 정부가 위촉한 심사진이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막혀 있던 봇물이 터지듯 다양한 시기,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서반아어의 4개 언어권에서 쏟아지기 시작했고, 기타 언어권은 정부 지원을 받아 소소하게나마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한국문학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기에는 충분했지만, 고전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소개에 있어서의 체계성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계성의 결여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록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세인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된 작품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의 존재를 알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문학을 보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양적 팽창의 단계를 지나 질적인 도약을 꿈꿀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도약이란 외국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껏 보아 온 다양한 면모들을 한국문학이라는 공통의 축 위에서 정연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게 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틀이란 바로 문학의 토대를 이루는 문화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국인들의 꿈과 현실, 믿음과 정서를 이루어온 한국문화를 이해시킨다면 한국문학의

세계화도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분석 및 체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소개 방법 역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영상 매체와 문자의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질적인 제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영화가 요즘 들어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은 음악, 미술은 물론이거니와 문학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영화나 음악, 미술이 영상 이미지 혹은 음, 색과 선이라고 하는 기호 체계에 의존함으로써 언어 기호보다 훨씬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학 역시 좋은 번역을 거쳐 소개된다면 영화나 미술, 음악 못지않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번역 출판의 과제와 해결책

그렇다면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창작, 번역, 출판, 유통 및 홍보의 사이클로 분절하여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을 짚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창작의 경우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갖고 다듬어 주옥같은 작품들을 만들어 냈지만, 세계에 나가 주목을 받는 작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작품들이 세계 여러 작품들과 견주어 수준이 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치열한 문제의식을 탄탄한 구성과 유려한 문체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에서 세계로의 열림보다는 한국문학만의 폐쇄적인 고유성을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며 또한 우리의 문학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국인의 현실 인식, 정서와 꿈 등을 반영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급속도로 세계의 경계가 지워지는 오늘날 외부로 눈을 돌려 세계문학의 조류,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인들이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적 수익성이 떨어져 출판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우수한 외국 작품을 우리가 수용하여 세계의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이 번역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해외에서의 우리 문학에 대한 반응이 피드백 작용을 통해 국내 창작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순환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번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번역은 번역가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장인적 경험에만 의존하는 번역작업은 개별적인 텍스트에 대해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른 번역으로 이어지며, 번역의 질은 전적으로 번역가 개인의 자의적인 선택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정보 전달로서의 번역이 아닌 문학 텍스트의 번역은 번역된 작품이 해당 언어권에서도 문학 텍스트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번역가는 그의 언어 능력과 문화, 사회의 맥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한국문학과 해당 언어권 문학의 문학성에 대한 전문적 소양, 탁월한 문학적 감수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번역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문학 번역 연구가 아직은 일천한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이론적 성과와 능력 있는 번역자들의 장인적 경험을 접목시켜 신진 번역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한국문학 세계화의 기반 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따라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유통 및 홍보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적 지원은 번역 지원 및 해외 현지 출판사를 통한 출판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가운데에 간간히 작가 파견을 통한 현지 홍보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판을 서두르고 강조하다 보니 출판사가 현지에서 어떤 위상을 지닌 출판사인지를, 또 한국문학의 홍보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한 채 출판된 작품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그러한 책들은 서점 진열대에 놓여 독자들을 기다리는 대신 출판되자마자 곧바로 재고 창고로 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령 진열대에 놓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중국, 일본의 작품들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진열이 되었기에 한국문학 작품의 변별성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해외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권위있고 평판이 좋은 출판사를 섭외하여 출판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출판사와의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는 출판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판의 단계에서 지원을 종료하기보다 홍보 및 유통 단계에까지 연장하고 언론매체, 작가 교류, 작품 낭독회 개최, 한국문학의 밤 또는 영상으로 만나는 한국문학 등 홍보 전략을 다각화하여 해외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

문화적 현상들의 실체는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의 상호교류와 수용발전의 과정입니다. 21세기 글로벌한 지구촌의 문화 풍속도는 나를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서 타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문화의 잠재적 대외수요와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시장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내내 우리의 굴곡된 정치현실과 만연된 문화적 상대주의는 한편으로는 서구 중심의 문화에 대한 일방적 수용과 모방만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외래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의 구축만을 문화활동의 주류로 착각하

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화 민족으로서의 잠재력은 음악과 조형예술분야에서 수많은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하여 글로벌한 세계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이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이나, 한글 창제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문자문화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문학적 성과물들이 타 문화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각적인 형식들과 만국 공통적인 기호체계에 기반한 다른 예술분야 - 특히 음악과 미술 - 와 다르게 국어를 매개로 하는 우리의 문학작품들이 제대로 그 문학성이 평가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문학적 번역작업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근자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출신의 가오징젠(高行健)이나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 문학에서는 서구의 독자층에게도 유효한 세계문화적 보편성을 읽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쓰여진 문학적 결과물에서도 역시 뛰어난 문학적 감수성과 세계문화적 보편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사적 중심 테마에 대한 접근 및 한국적 변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의 독창성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문학작품의 소개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각국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일이며, 서구 문화 중심의 세계문화적 보고에 우리의 문화적 기여를 통해서 지구촌의 상호이해와 상호인정에 의한 공평하고 대등한 세계질서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혼재해 있는 여러 담론들 속에서 우리 문학의 목소리를 내가 아닌 타자들에 의해 들려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번역은 작품이 담고 있는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공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번역 개념에 대한 관심과 연구만이 한국문화 현상 및 문학작품이 지닌 한국적 특성을 세계문화적 보편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 확립과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적 고려가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문학 세계화의 우선 과제는 한국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고민속에서 문학적 텍스트의 번역 가능성에 대한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